



KOREA

# 2024 ANNUAL REPORT

2024 연간보고서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3,8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WWF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http://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 정보**

**제목:** 2024 한국WWF 연간보고서  
**발행인:** 박민혜  
**발행처:** 한국WWF  
**발행일:** 2024년 11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Muhammad Osama / WWF-Pakistan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2024 한국WWF 연간보고서  
© Text and graphics 2024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보고서는 산림관리협의회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받은 종이로 인쇄되었습니다.



**목차**

|              |    |
|--------------|----|
| 인사말          | 2  |
| WWF 소개       | 4  |
| WWF 주요 활동    |    |
| - 기후·파이낸스    | 8  |
| - 플라스틱       | 14 |
| - 생물다양성      | 18 |
|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 24 |
| - 변화를 만드는 참여 | 28 |
| 한국WWF 10주년   | 36 |
| 판다 이야기       | 42 |
| 회계보고         | 48 |
| WWF 네트워크     | 50 |

# 티핑 포인트를 막는 우리의 도전



한국WWF  
이사장  
홍정욱

WWF의 「2024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했습니다. 생물종의 심각한 감소는 단순히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자연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티핑 포인트'로 접어들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은 거의 3°C에 육박하고, 해수면은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섬뜩한 기후위기의 미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 10년 후의 우리 자신과 앞으로 이 지구에서 수십 년을 더 살아갈 우리의 자녀, 그리고 모든 지구 생명체가 겪을 현실입니다. 지구를 지켜야 할 이유는 자연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올해로 설립 10년을 맞은 한국WWF는 이 같은 사명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약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눈앞에 와있는 티핑 포인트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약속한 2030년 글로벌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감축하고, 자연을 보전하고 복원하며, 빈곤을 종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WWF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식량 시스템을 바꾸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금융이 자연을 위하는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기후변화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는 지구 위기를 만들어낸 가해자이자, 그 대가를 치르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구원자입니다. 개인의 힘이 모여 집단의 힘으로 이어져야 하며, 혼자서는 힘들다면 함께 싸워줄 이들에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WWF는 국제사회와 정부, 기업이 움직이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WWF의 도전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요. 감사합니다.

# WWF가 그리는 앞으로의 10년



한국WWF  
사무총장  
박민혜

흔히들 청소년기를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진로 선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한국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선택의 시점'입니다. 진로 선택을 할 때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앞으로 어떤 지구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신중히 생각하고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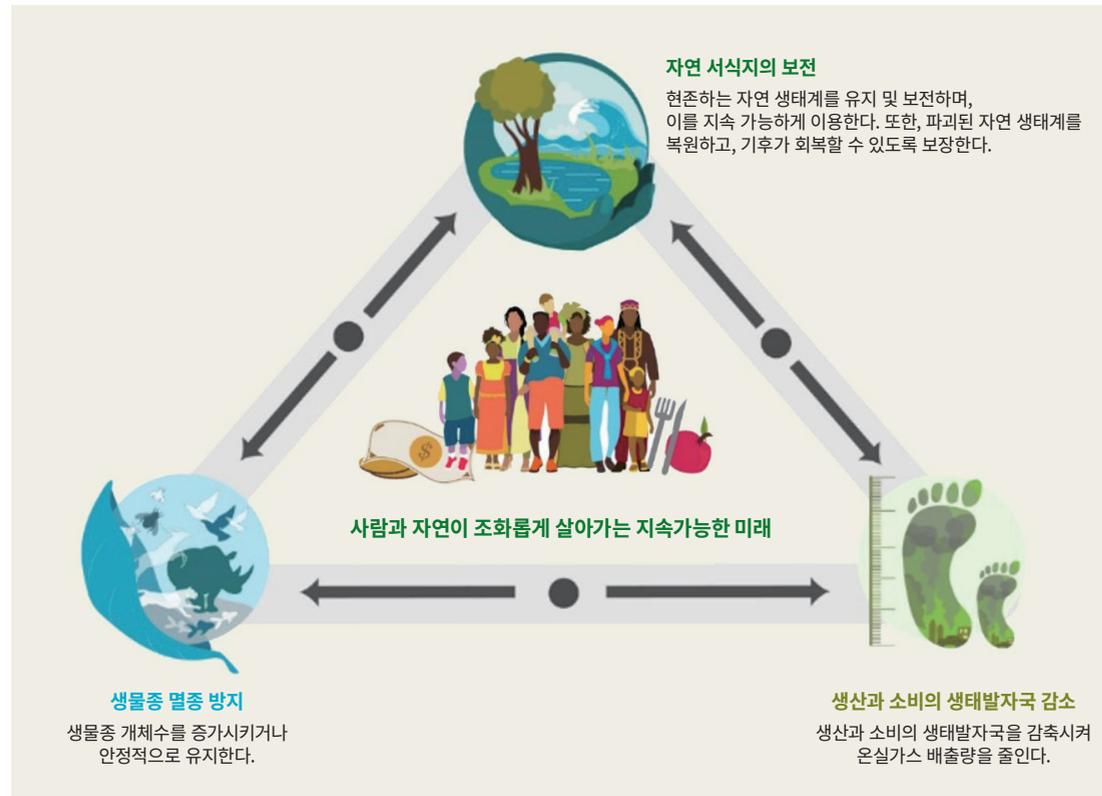
WWF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행동 변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10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WWF가 진행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환경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실천형 키워드가 급증했으며 미세먼지 등에 머물렀던 환경 관련 검색어는 탄소중립, 플라스틱, 멸종 등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WWF의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회원이 많아지고 캠페인 참여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자연의 실태로만 본다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은 10년입니다. 우리는 매년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고, 잦은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구생명지수로 표시되는 전 세계 생물종의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 리더들이 약속한 지구 상승 온도 임계점 1.5°C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 아니며 10년 후 지구에 생존해 있을 모든 생명체를 위한 선택입니다. WWF는 모두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뜻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과 지구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연기반 해법을 제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최선을 다해 자연 회복을 이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힘, WWF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WWF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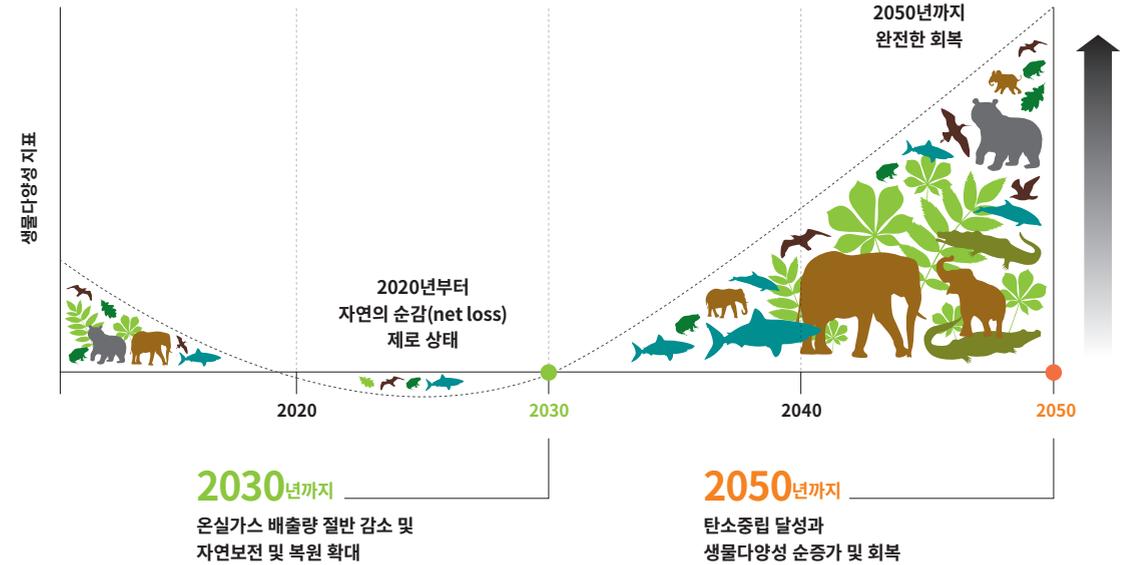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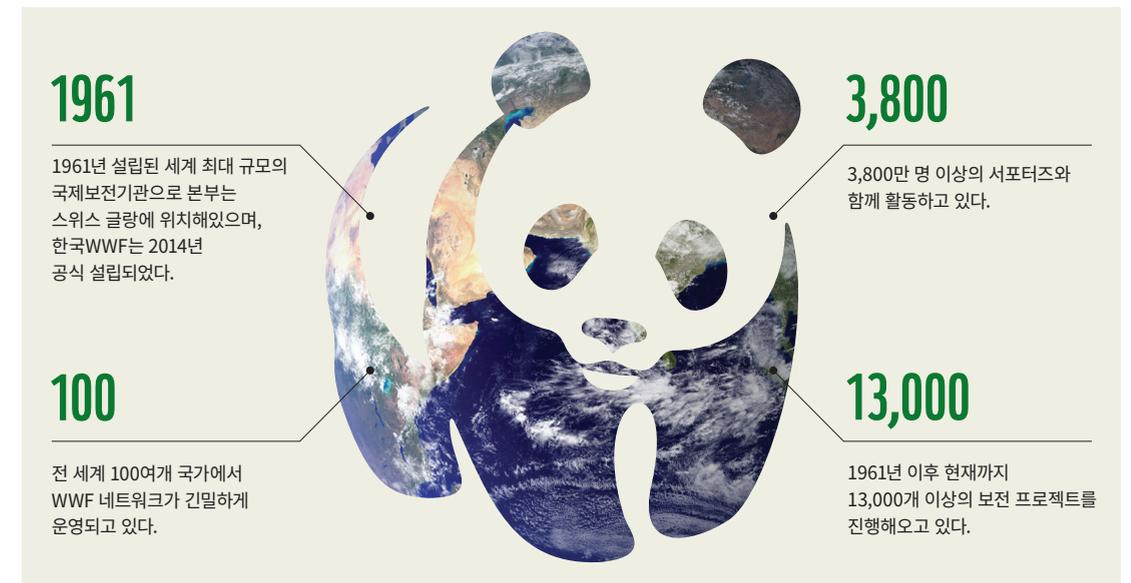
WWF의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다.

WWF는 과학 기반 접근 방법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유엔 기후 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사회의 환경 아젠다를 선도하며, 정부, 기업, 금융기관, 학계, 사회 단체, 지역 사회 등 주요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WWF가 만드는 세상



## 숫자로 보는 WWF





© naturepl.com / Anup Shah / WWF

# WWF 주요 활동

- 기후·파이낸스
- 플라스틱
- 생물다양성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 변화를 만드는 참여

# 기후·파이낸스

지구상 모든 생명의 미래는 1.5°C 목표 달성에 달려있다.

## 활동 배경 및 목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에서 2028년 사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1.5°C를 넘을 가능성이 80%에 달한다. 우리나라 역시 2024년 여름철(6월~8월) 전국 평균기온이 25.6°C, 열대야 평균 일수 20.2일을 기록해 현대적인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3년 이후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가장 더운 여름'이 됐다.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폭염, 폭우, 극심한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만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WWF는 파리협정 목표인 1.5°C 온도 상승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한국 사회가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에너지 문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과 자본의 역할에 대해 소통

### 목표

- 2050 탄소중립사회 구축에 기여

### 추진 방법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노력 가속화 지원
- 그리닝 파이낸스 및 파이낸싱 그린

하고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촉구, 자연 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James Morgan / WWF

## 주요 활동

###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세미나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11월 SBTi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씨티은행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37개 기업 약 80여 명의 실무진들이 참여했으며,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가이드 및 SBTi 가입 및 검증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SBTi 국내외 동향에 대한 WWF의 발표 이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에코시안에서 산업별 SBTi 참여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발표했으며, SK에코플랜트와 LG전자는 목표 검증까지 마치기 위한 기업 실무진의 SBTi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SBTi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2024년 1월 'Unite, Act, Deliver: Nature-positive 경제를 위한 기업의 기후 행동'을 주제로 제9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i) 실무 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회복을 위한 자연 과학기반 목표(Science Based Targets for Nature, SBTN)가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제 사회의 생물 다양성 보전 현황과 가속화되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SBTN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 분석을 돕기 위해 개발된 WWF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필터를 소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퀴티파이 드이에스지, 에코시안은 SBTi 단기 목표 및 기준 권고안과 컨설팅 지원 사례를 발표했고, SK네트웍스는 SBTi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 총 68개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11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다.



## 기후행동 콘퍼런스(Climature Action Conference: CAC)

2024년 3월 ‘기후와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주제로 제5차 기후행동 콘퍼런스(Climature Action Conference, CAC)를 개최했다. 기후와 자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넷제로 산업을 위한 녹색 전환,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 구축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행사에서 녹색산업 육성 전략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환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정책 동향과 블루카본 등을 안내하며 자연 자본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라민 하사노브 주한 대사가 축사를 하여 의미를 더했다. 또,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논의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고 기후재원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기업, 학계 및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며 기후행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후행동 서포터즈 (Climate Action Supporters)

기후위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기후행동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올해 5기를 맞이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Youth Stocktake: Global Challenges and Youth-led Nature-based Solutions’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분석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24명의 대학(원)생들은 6개 조로 나뉘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군소도시 개발도상국(SIDS) 등 세계 각 지역의 기후위기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자연기반 해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기후행동 콘퍼런스 2024’에서 게시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되었고, 우수팀에게는 WWF-Hong Kong의 자연보전 사업지역에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CoREi)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는 2020년 발족 이후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파리협정 1.5°C 목표를 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주제로 한국과 유럽 기업의 지식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4년 3월에는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무공해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논의했다. 이어 7월에는 ‘재생에너지 24/7(실시간 매칭) 조달 및 녹색프리미엄 세미나’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실시간 매칭 개념을 안내하고 녹색프리미엄 제도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도모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CoREi 홈페이지를 개설해 최신 동향과 전문가 기고를 공유하고,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년회를 개최했다.

정책 제언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2023년 11월에는 「SBTi 단기 목표 기준 및 권고안」 및 「공급망 탈탄소화 인게이지먼트 지침: Scope 3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목표 개발 및 달성 지침」을 국문으로 번역해 배포했다.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4가지를 담은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5개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 상황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당의 답변은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에서 공개해 논의를 이어갔다.



##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시 및 기후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전환적 위험의 영향이 커지자 기업은 기후로 인한 위험 역시 별도 위험 요소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에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지원하고자 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ESG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기후 리스크 대응 관련 지원 정책 및 도구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후위기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 기후대응기금 보고서 발간 및 국회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후대응기금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WWF는 2023년 9월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과 해의 기후 관련 기금 운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2023년 11월에는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함께 「기후대응기금의 개선 과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불충분한 규모, 비효율적 사업 구성,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기후대응기금의 성격 및 취지에 대한 재정, 기금운용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성 보장, 성과평가 방식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며 기후대응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어떻게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주요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 「SUSBA: 아시아 및 국내 은행의 지속가능성 활동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24년 3월 5개 국내은행을 포함해 아시아 8개국 4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SUSBA)」 보고서를 발표했다. WWF-Singapore에서 개발한 SUSBA 프레임워크는 아시아의 주요 환경 및 사회 이슈에 초점을 맞춘 평가 도구로써,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총 5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SUSBA 전체 점수는 2022년 평가 대비 5.6% 상승했으며, 평가 대상 은행의 83%가 환경 파괴 관련 사회 및 경제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 관련 리스크 대응 조치를 마련한 은행은 13%에 불과해 자연 자본 문제에서는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를 넘어 자연 및 생물다양성으로 지속가능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SUSBA 보고서는 심층적인 인식 제고와 구체적인 정책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Staffan Widstrand / WWF

# 플라스틱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 활동 배경 및 목표

WWF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자연 파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연으로의 플라스틱 유출 제로(No Plastics in Nature)' 전략을 두고, 기업을 비롯해 각국 정부,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는 어느 한 기업,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WWF는 기업 다자 간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선언인 PACT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작년 한 해 동안 1만 8,509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또, 2022년부터 시작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 인식 제고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2024년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된다. WWF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만들어져 순환 경제를 달성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 목표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달성과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 추진 방법

- 플라스틱 자원순환 달성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통한 생태계 보전



© Getty Images / Jamie Lamb - elusive-images.co.uk

##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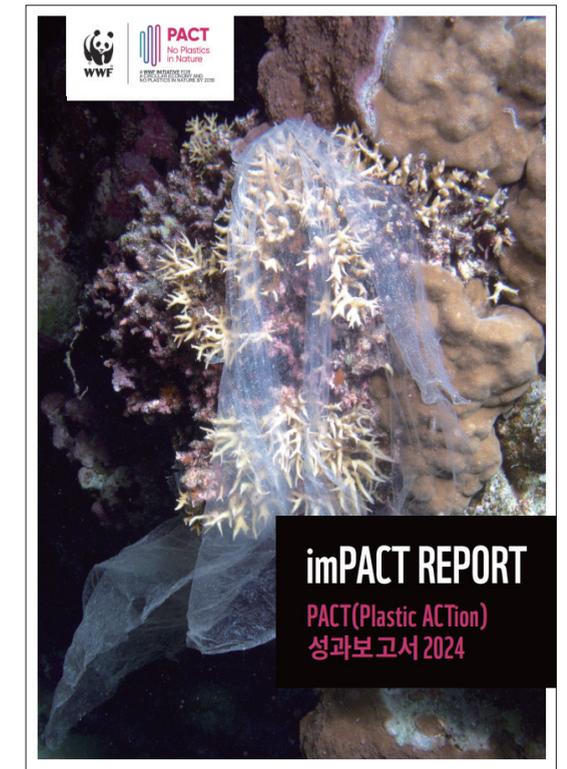
### PACT 기업 공동 선언 활동

PACT(Plastic ACTION)는 생태계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자 WWF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업 공동의 다자간 선언이다. 기업의 공동 참여를 통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디자인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PACT는 지난 2019년 WWF-Singapore에서 출범해 예비양, 하얏트, 힐튼 등 다양한 업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고 1,2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감축을 이끌어내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해 왔다.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에 이어

2021년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PACT를 출범하여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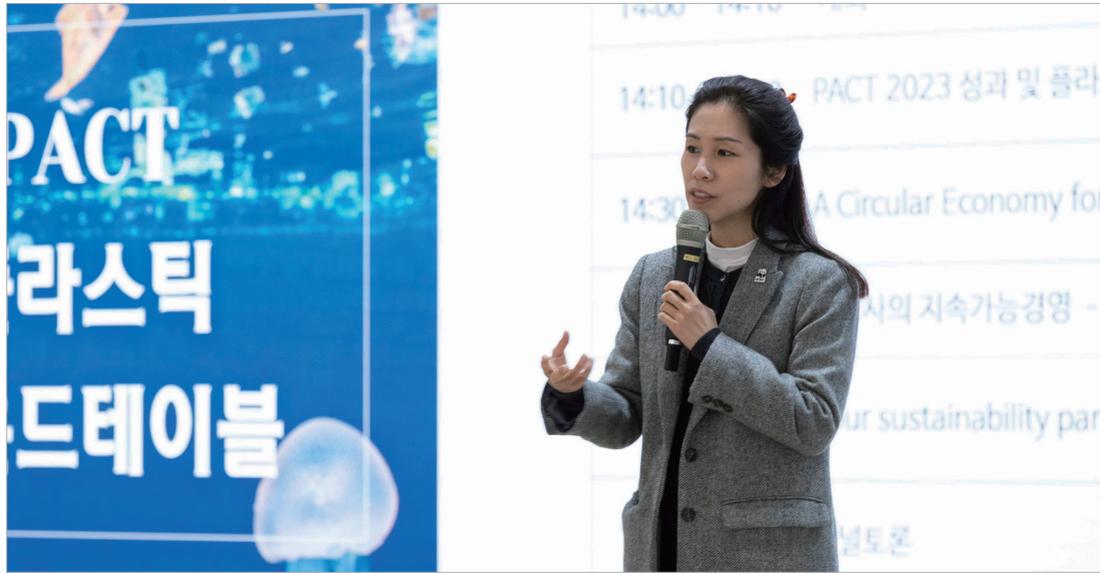
WWF는 성과 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하고 2024년 2월 제4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의 불평등과 순환경제에 대한 연구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의 PACT 가입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 의지를 다지고 각자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약 1만 8,509톤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제4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4년 2월 WWF는 '제4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PACT 기업들을 포함한 20여 개 기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WWF는 PACT 이니셔티브 성과를 공유하고, WWF에서 발간한 「플라스틱 오염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보고서를 소개하며 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보다 약 10배 이상의 플라스틱 생애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엘렌 맥아더 재단은 플라스틱 재사용 확대의 어려움, 연질 플

라스틱 문제, 수거 및 순환 인프라 구축 등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3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다음으로 삼양사가 폐어망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며 소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폐어망 재활용 소재의 생산 및 품질 관리 과정, 인증 현황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아임에코(산수음료)가 카드사, 호텔, 페스티벌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이력 관리 및 재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서명 캠페인

WWF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촉진하기 위해 서명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릴 제5차 정부 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전 세계적인 서명 운동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플라스틱 오염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보고서 발간

WWF는 2023년 11월 「플라스틱 오염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 생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에서 플라스틱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고소득 국가보다 8배, 저소득 국가는 10배 더 높다.

중저소득 국가들은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오염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Rising Tides III」 보고서 발간

WWF는 2024년 4월 「Rising Tides III」 보고서를 발간하며 전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32개국 24,727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와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재사용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 규제의 중요성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WWF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

자연의 다채로움,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이다.

## 활동 배경 및 목표

### 목표

-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구현

### 추진 방법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주요 멸종위기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
-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동 책임 강화

생물다양성 감소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을 초래한다. WWF가 발간한 「2024 지구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1970년 대비 평균 73% 감소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2023년 적색 목록에는 약 41,000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식량안보와 기후 조절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며, 생태계는 물론 인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WWF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 활동, 관련 연구 지원, 해양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WWF-Pacific/Tom Vie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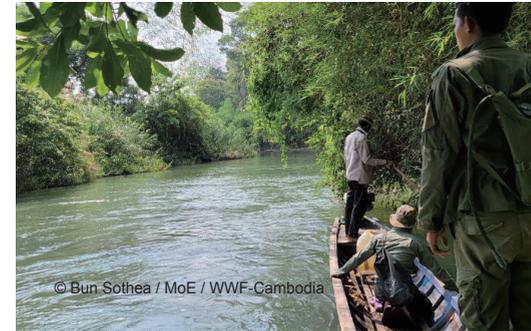
## 주요 활동

###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사업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필수적인 깨끗한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인간과 자연 생태계 모두 건강할 수 있다.

WWF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 지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① 캄보디아 삼 악어 보전



© Bun Sothea / MoE / WWF-Cambodia

WWF는 한술섬유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캄보디아 메콩강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WWF-Cambodia에서 시작한 삼 악어 보전 프로젝트는 세레포크(Srepok) 강의 생태계와 삼(Siamese) 악어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확대해 메콩강 지역의 자연 보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방류 준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어업의 70% 감소, 삼 악어 개체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② 북극 보전 프로그램

WWF의 북극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인 북극 프로그램(WWF Global Arctic Programme)은 1992년에 시작되어, 북극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WWF는 북극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기구인 북극 이사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북극의 자

원 보호와 거버넌스 체계 보전을 위해 북극 국가 및 원주민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참여형 연계 기부 이벤트와 해피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이 북극 보전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으며, 북극곰과 바다코끼리 등 주요 보전 대상 동물 6종을 포함한 여러 생물종을 보호하고 북극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주목할 만한 보전 활동의 성과도 있었다. 작년 모니터링 결과 북극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이마기러기 개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북극곰 서식지 보전과 개체수 복원에 도움이 되는 환경 DNA 수집 및 분석 방법 개발에 성공했다. WWF는 북극 프로그램을 통해 북극 생물종의 회복력을 높이고, 2030년까지 북극해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naturepl.com / Steven Kazlowski / WWF

### ③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방지 활동

WWF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Illegal Wildlife Trade)를 막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정부 기관,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운 및 항공 산업, 기타 보전 단체들과 함께 불법 밀거래 루트를 차단하고, 야생동물 불법 운송이 더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도록 노력 중이다. 또한, 야생동물 밀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촉진하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WWF는 연구 자금 지원, 시민 과학 이니셔티브 동원, 불법 거래 관련 글로벌 금융 기관 및 대중 인식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지역의 야생동물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밀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WWF는 말레이 호랑이(Malayan Tiger) 서식지 파괴 및 밀렵 근절을 위한 대중 홍보 자료도 제작하고 있다.



© Suzi Eszterhas / Wild Wonders of China / WWF

### ④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생물종 보전(Species in Crisis)

WW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멸종위기에 처한 100여 종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파트너 분석, 실사 등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수행 및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보전 단체와 지역사회, WWF 사무소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장기적인 자원 확보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두 생물종에 집중된 활동을 진행했다. 첫째, 캄보디아 몬둘끼리(Mondulhiri) 주의 긴팔원숭이(Gibbon)를 보호하기 위해 캐노피 브리지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관광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방지하고 이동 경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둘째, 라오스 동 사키(Dong Sakee) 숲의 은빛원숭이(Annamese Silvered Langur)와 붉은정강이두크 원숭이(Red-shanked Douc Langur)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전 활동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기반의 보전 계획 수립, 사회적 인식 제고, 생태 관광 인프라 개선, 관련 규정 개정, 지역 관광 산업과의 연계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 Samuel Chew

### ⑤ 아시아 철새이동경로 이니셔티브

WW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철새 개체 수를 안정화하고 생태계 건강 회복을 위한 습지 보전을 목표로 아시아 철새이동 경로 이니셔티브(Asian Flyways Initiative, AFI)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새 보호를 위해 동아시아-대양주(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n Flyway, CAF)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주요 습지와 서식지 보전 및 복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동아시아-대양주와 중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기업의 위치 정보를 매핑해, 철새 서식지와 기업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WWF는 앞으로 농업, 수산업, 에너지, 운송 등 여러 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철새 서식지의 보전 및 복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 Gerard Visser / WWF

### 보전 연구 지원 활동

#### 「대기오염으로 인한 꿀벌 시정 거리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WWF는 202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대기질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사례 연구를 진행해 생물다양성 기초 연구의 폭을 넓혔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이 꿀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꿀벌 약 2,500마리에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태그를 부착해 비행시간을 추적한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면 편광 세기가 감소하고 꿀벌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먹이 탐색 능력 저하로 이어져 꿀벌 군집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식물 번식에 필수적인 수분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WWF는 2024년에 2차년도 연구를 진행해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꿀벌 시정 거리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식지 오염 방지 활동

### ① 양양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WWF는 2023년 11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인근 해역에서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해 약 3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바닷속 깊이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인양틀과 크레인인 탭재된 특수 선박을 활용해 폐어구, 로프, 통발 등을 건져냈다.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하고 세척 과

정을 거쳐 재활용 처리되었으며, 일부는 소각 및 열분해 처리됐다. WWF는 2021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을 맺고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 오염과 유령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② 통영 해양 정화 활동

WWF는 국립공원공단과 통영 해양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해 18,390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통영 부근의 도서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떠밀려오지만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인 수거 활동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WF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통영 연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 27명과 함께 연대도 해변 6곳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WWF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해양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 Sarah Pietrkiewicz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업의 담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다.

## 활동 배경 및 목표

### 목표

- 기업의 환경 영향 및 생태발자국 감소

### 추진 방법

- 비즈니스 방식 변화를 통한 생산 및 소비의 생태발자국 감소
- 인식제고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이해 증진
- WWF 보전 사업 지원

이러한 협력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증대시키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WWF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Greg Armfield / WWF-UK

WWF는 지구의 자연자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자연자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리스크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WWF는 2030년까지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2050년까지 자연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협력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WW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와 틀을 활용해 공급망 전체에 걸쳐 기업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소비자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주요 활동

### 지속가능인증협약체 발족 및 보고서 발간

WWF는 산림관리협약체(FSC), 수산양식관리협약체(ASC), 해양관리협약체(MSC)와 협력하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책임 있는 자원관리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속가능 인증 협약체'를 2024년 4월 출범했다.

협약체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의의,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트렌드, 각 인증제도별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5월에는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생산, 제조, 유통,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공급망에서 자연과 인간에게 이로운 시장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WWF는 2023년 11월부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상품 공급 및 판매 10개 업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소비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는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세미나'를 개최해 상품 제조, 공급, 판매까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장재 재질 및 구조개선 사례와 우수 포장기술 상용화 현황을 공유했다. 본 행사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 도입이 자연 보전뿐 아니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요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7개 상품 공급업체(남양유업, 농심, 롯데칠성음료, 매일우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인삼공사, LG 생활건강)와 3개 상품 판매업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파트너사 임직원 참여 활동 및 교육

WWF는 기업 임직원들이 자연 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업의 특성과 목표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봉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 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서식지 정비 활동

WWF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협력해 임직원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해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및 밤섬에서 정기적으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도심 내 식물 서식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생태계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 아고다와 함께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을 찾아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목책을 설치해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 ②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 정화 활동

뽀아에너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해 해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임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안가 쓰레기 오염 상황을 인식하는 등 전 연령대에 걸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해안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③ 해양생태계 및 플라스틱 오염 인식개선 교육

WWF는 부쉬맨의 썸머스쿨 이벤트(2024 Bushman Summer School)에 참여해 해양생태계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양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일반 대중에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WWF의 보전 활동의 의미와 방향성을 알릴 수 있었다.



## 제2회 지속가능패션 세미나 및 교내 캠페인

WWF는 섬유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와 지속가능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순환패션으로 가는 길: 소재부터 소비까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순환패션 시장 형성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중고거래의 확장성을 공유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패션 업계는 소비자의 요구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기존 선형 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교내 캠페인에서는 퀴즈, 서명운동 등의 프로그램 부스를 준비했으며, 총 15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변화를 만드는 참여

우리의 이름이 모여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된다.

## 활동 배경 및 목표

### 목표

- 정보 전달과 참여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행동 변화

### 추진 방법

- 캠페인을 통한 대중 기후위기 인식 제고
-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실천 유도
- 온라인 미디어 활용 교육 및 홍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시민은 소비자이자 유권자로서 기업과 정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WWF는 이들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WWF의 플래그십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불을 끄는 행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상기시킨다. 환경과 자연을 주제로 기획한 인터뷰 시리즈 ‘그린터뷰’,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의 위기는 단순히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WWF는 시민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주요 활동 성과

### 지구를 위한 1시간, 어스아워

WWF 대표 캠페인이자 올해로 18년 차를 맞은 어스아워 캠페인이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진행됐다. 어스아워는 지구를 위해 1시간 불을 끄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올해도 180여 개국의 주요 랜드마크와 수많은 시민이 불을 끄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청, 송례문, 수원화성행궁, 롯데월드타워, 남산서울타워 등 대표 랜드마크와 서울과 부산의 교량시설을 포함해 전국 각지의 101곳에서 소등에 동참하며 자연 보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 어둠으로 지구를 구하는 다크히어로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시민의 참여가 이어졌다. 어둠으로 지구를 구한다는 뜻을 담은 ‘다크히어로’ 이벤트에는 약 2천 5백여 명이 선언에 함께했다. 다크히어로 선언에 참여하면 친환경 DIY 전등인 ‘어스아워 시그널’을 제공해, 어둠 속에서 시그널을 비추면서 재미있게 어스아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어스아워 시그널은 1천 명 선착순 조기 마감되고, 다

크히어로 캠페인 영상은 23만 회 이상 조회수와 약 42만 회의 SNS 노출을 기록하는 등 어스아워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 ‘리틀 다크히어로’에는 전국에서 약 500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 홍정욱 한국WWF 이사장을 비롯해 배우 최시원, 방송인 안현모, 작가 고상우 등이 시그널을 인증하며 지구를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탤었다.



## ‘해양쓰레기부터 제로웨이스트까지’ 그린터뷰(Greenterview) 시즌2

WWF 홍보대사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진행하는 그린터뷰 시즌 2가 2023년 8월 공개됐다. 그린터뷰는 주제별 게스트를 초청해 지구와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콘텐츠다. 시즌2의 주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지속가능금융, 제로웨이스트 등 4가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연 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다이버, 변수빈 디프다 제주 대표는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쓰레기를 직접 보여주며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렸고,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과 김동혁 이마트 부장은 플라스틱 과대 포장 관련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투자 활동을 통해 금융이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제로웨이스트를 상세히 설명하며 소비자의 실천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시즌은 총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함께한 환경 교육

WWF는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모인 43,00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부스를 운영했다. WWF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 철새, 생물다양성 등의 주제를 다루며, 참가자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참여형 활동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새롭게 배우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잼버리 종료 후에는 80여 명의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서울 노을공원에서 나무 심기와 씨드뱅크 활동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직접 기여하며,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 과학기술과 야생동물 이야기를 만나는 판다LAB

WWF는 2024년 4월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여해 멸종위기 동물을 조사하고 보전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했다.

DNA 분석을 통한 북극곰 집단 모니터링,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 탐지 기술, 드론을 활용한 코끼리 이동 추적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전시했고,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 1600+ 판다 플래시몹을 열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한민국 과학축제에는 4일간 약 49만 명이 참여했으며,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연보전활동을 이어가는 WWF를 알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는 지구하다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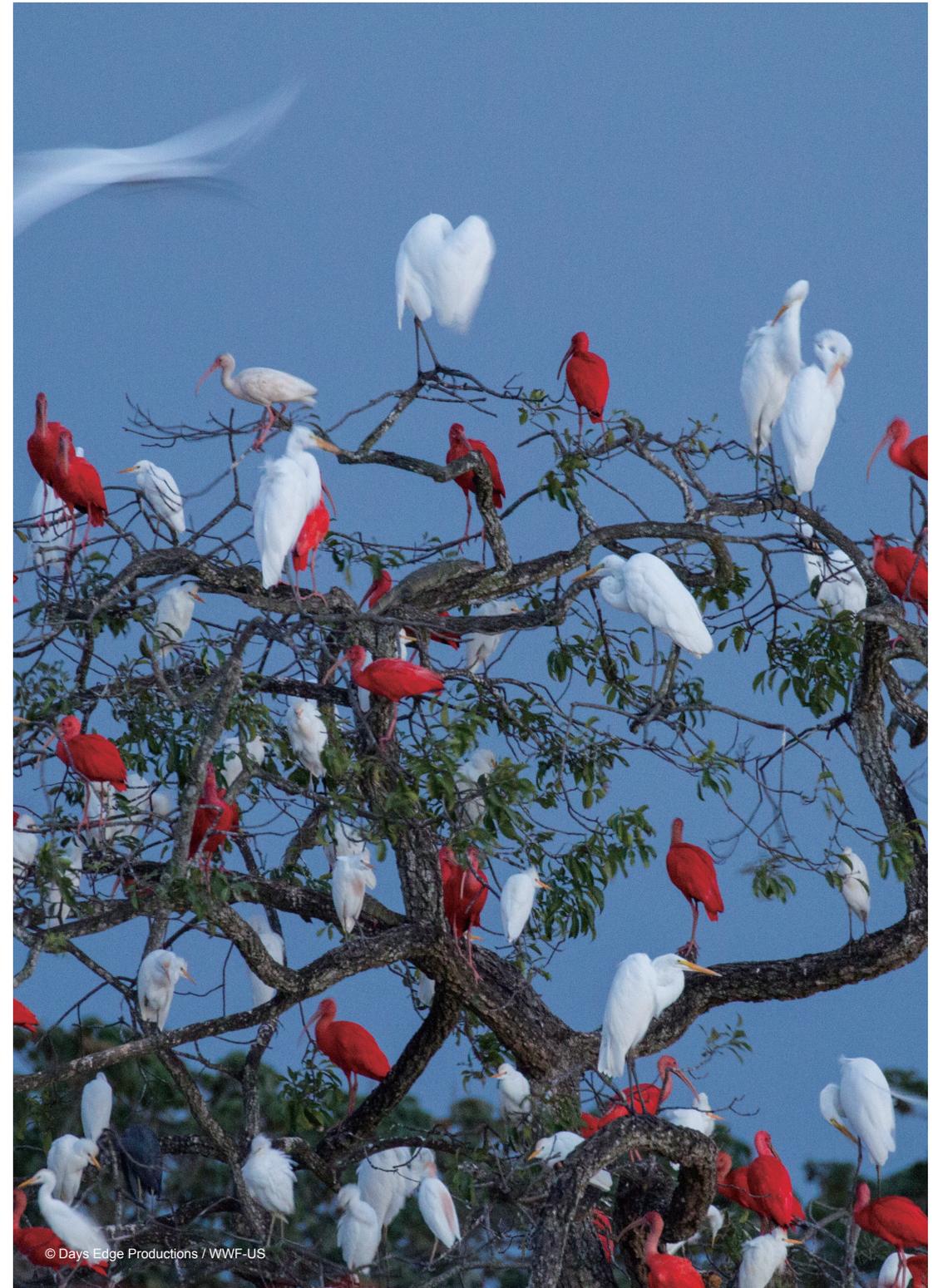
2023년 10월, WWF는 환경부, 교보생명,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최한 광화문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여러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환경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연보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주제별로 구성된 5개 구역에서 자연보전의 중요성, 자연보전 실천 방법,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을 배우고 체험했다. WWF 부스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대한 교육과 플라스틱 오염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는 다짐을 써서 붙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소년, 시민, 관광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부스를 방문했으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 습관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 멸종위기종 인식 제고를 위한 러브아워플래닛 캠페인

2024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모하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한 '러브아워플래닛 캠페인'을 진행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는 대왕판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 동물들의 영상으로 꾸며졌고, 호텔 객실 후원 패키지를 예약하면 리사이클링 소재로 제작된 WWF 동물 인형과 친환경 에코백을 제공했다. 또한 인스파이어 어물에 WWF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스파이어 리조트 곳곳에 구성했다. 이를 통해 WWF는 레저와 휴양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국내외 투숙객을 대상으로 보전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숙박과 레크리에이션이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환경 캠페인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 Days Edge Productions / WWF-US



**한국WWF 10주년**  
**10th ANNIVERSARY**

© naturepl.com / Gerrit Vyn / WWF

# 한국WWF 10주년

2024년 한국WWF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지난 10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담대한 목표’를 발표하는 여러 자리를 마련했다. 10주년의 포부를 담은 기념 엠블럼을 공개하고 러브잇 약속하기 챌린지, 10주년 한정 편딩키트 제작 등 다양한 관련 활동도 진행했다.

## 러브잇 약속하기 챌린지



한국WWF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Love it or Lose it)’를 10주년의 테마로 삼고 지난 10년의 활동과 향후 목표를 담은 홈페이지를 4월 공개했다. 특히 ‘러브잇(Love it) 약속하기 챌린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연의 30%를 보전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WWF 목표에 누구든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러브잇 약속 카드를 만들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지구를 위한 약속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미 요소도 더했다.

## 1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설립 10주년을 맞아 ‘10주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엠블럼은 한국WWF가 지난 10년 동안 자연의 위기에 눈 감지 않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을 의미하고자 숫자 ‘10’을 눈모양으로 형상화했다. 단순히 숫자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엠블럼에 사용된 푸른색 계열 색상은 WWF가 보전하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자연을 상징한다.



## 10주년 기념 감사와 후원의 밤 개최

2024년 5월에는 10주년 기념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기업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WWF의 비전 선포와 플래그십 캠페인 소개를 통해 WWF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파트너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고상우 작가와 이준형 마술사의 퍼포먼스를 통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Love it or Lose it)’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개인과 기업들의 많은 후원이 이어져 WWF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WWF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구가 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 고상우 작가와 함께한 10주년 러브잇챌린지 키트

10주년을 기념해 한정 제작한 러브잇챌린지 키트 굿즈를 ‘감사와 후원의 밤’에서 공개했다. 고상우 작가의 작품 사용권 기부를 통해 특별히 제작된 러브잇챌린지 키트는 파우치 2종, 의류 3종, 에코백 2종, 이상 총 7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수익금 전액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쓰인다.

이번 러브잇챌린지 키트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며, 원료부터 소재까지 GOTS, OEKO-TEX, Fairtrade Mark 이상 3종 공식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다. 고상우 작가는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이라는 WWF의 목표에 공감하며, 2022년 호랑이의 해 특별 전시를 시작으로 판다토크, 그린터뷰, 어스아워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 10주년 기념 ‘판다토크’ 개최

2024년 7월 ‘우리의 선택으로 만드는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10주년 기념 판다토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WWF 후원회원 및 서포터즈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WWF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지구를 위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판다토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는 중구문화재단이 개최한 ‘컨페션 투 디 어스(Confession to the Earth)’ 사진전 관람 기회가 제공됐다. 사진전에 함께한 이대성 작가는 판다토크 연사로 참여해 작품의 의미와 제작 과정, 그리고 사진의 배경인 인도와 몽골 지역의 자연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정수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현재 지구가 처한 위기를 강조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10주년을 맞이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도 WWF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대 행사로 마련된 지속가능한 식재료로 구성된 웰컴푸드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이주연 피아니스트 공연으로 오감을 통해 WWF 활동과 자연 보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판다 이야기**  
**PANDA STORY**

© Staffan Widstrand / Wild Wonders of China / WWF

# 판다 이야기

WWF에서는 서로를 ‘판다’라고 부르며 하나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 판다와 판다가 모여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판다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 인터뷰

“개개인의 힘을 WWF가 모아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될 것”

2024년 1월 한국WWF 최초로 내부 선임된 박민혜 사무총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WWF에서 가장 오래 일해 ‘시조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박민혜 사무총장은 그만큼 WWF에 대한 오랜 애정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0주년을 맞아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한국WWF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2030 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WWF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 세계 자연보호구역을 3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50년제로 달성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 플라스틱 감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WWF는 2030 비전 달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 미래에 대한 포부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지난 10년 한국WWF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나 자부심을 느낀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WWF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판다와 불곰 서식지를 직접 방문한 경험입니다. 중국 쓰촨은 야생 판다의 약



80%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WWF는 판다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야생 판다 개체수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야생 판다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식지를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WWF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캄차카에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 야생 불곰을 마주하며 자연의 웅장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며 보고서의 데이터로 바라본 자연이 아닌, 진짜 자연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WWF에서 일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10년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자연은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식량 시스템에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낭비되는 식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려면, 식단을 포함한 소비 습관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뀌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WWF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총장님은 한국WWF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는데요, 후원회원분들과 만났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2015년에 진행했던 ‘1600+ 판다’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뼈빠에 마쉐 판다 인형을 직접 판매하며 일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WWF가 한국에 막

진출했기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연보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판다를 구매하며 기부에 참여해 주셨고, 후원회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하는지 그 진심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WWF 사무총장이 되어 맞이한 ‘10주년 기념 판다토크’에서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후원회원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WWF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마치 결혼식에서 혼주가 되어 축하를 나누는 것처럼 감사와 뿌듯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 변화를 만들고 힘을 실어주는 후원회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WWF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가치를 지지해 주시는 후원회원분들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WWF는 후원회원분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약속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회원분들의 재정적 기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며 더욱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1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 더 오랜 기간 함께 해나갈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WWF가 변화를 만드는 힘은 후원회원분들의 각각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후원과 지지, 일상의 참여 등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힘을 WWF가 모아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되겠습니다.

## 성래은 한국WWF 이사 인터뷰

“이 길을 함께 가다 보면, 지구를 위한 변화가 나타날 것”



성래은 이사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그룹 부회장

###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갖는 자연보전 분야가 있나요?

제가 최근 미팅 장소가 살짝 추워 일하시는 분께 말씀드렸더니 “에어컨을 꺼드릴게요”라는 답변이 돌아와 매우 놀란 적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에어컨을 트는 대한민국에 살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상 기후는 우리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인류를 비롯한 동식물의 존망과도 관련 있기에 기후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패션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에 개인뿐 아니라 경영인으로서도 기후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회사로서 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올해 한국WWF의 10주년이 있었습니다. 10살이 된 한국 WWF를 지켜본 소감은?

제가 해마다 챙겨 보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2025년을 이끌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기후 감수성’을 꼽았습니다. 오늘날 자연보전 문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내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WWF가 한국에 문을 연 10년 전만 해도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같은 단어들은 생소했으며 자연보전은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거대 담론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WWF가 ‘어스아워(Earth Hour)’,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Plastic Free Challenge)’ 등을 꾸준히 펼친 결과 자연보전은 우리 삶 속에서 쉽고 재밌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WWF와 함께하는 수만 명의 한국 후원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WWF를 통해 자연보전이라는 같은 길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회원들이 WWF를 통해 자연보전의 생활화라는 변화를 이뤄냈듯이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가다 보면 결국 지구를 위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사로서 저도 WWF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항상 잘 살펴보고 싶습니다.

### WWF와 함께 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사를 맡기로 한 동기가 있나요?

저는 2018년 이사회에 합류하여 햇수로 7년째 WWF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회사가 패션 제조를 주된 업종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생산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줄일지가 경영상 주된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제조 시설에 태양광 패널, 용수 재처리시설 등 친환경 투자를 열심히 해왔지만 환경은 한 회사가 아닌 공급망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절실함이 느껴지던 차에 당시 이사로 계시던 홍정욱 이사장님으로부터 이사직 제의를 받아 기꺼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후원회원 인터뷰 1

### 10년간 WWF와 함께한 심상현 후원회원

“10주년을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 WWF 후원을 1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WWF와 함께하게 되었는지 사연이 궁금합니다.

10년 전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전공 교수님이 강의시간에 항상 환경과 사람이 공존해야 하는 학문임을 강조하셨기에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WWF의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이 생겨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인으로서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환경을 위한 초심을 되새기며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10주년 기념 판다토크에도 참석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0주년 기념 판다토크에 초대한다는 문자를 받은 순간입니다. 후원한 지 10년이 됐다고 생각하니 조금 놀랐고, 꾸준히 후원해 온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WWF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정수종 교수님의 강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갈라파고스에 사는 푸른발얼가니새가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먹이가 부족해져 동족을 살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이제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 WWF의 활동 중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푸바오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나 보호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후원을 시작한 10년 전부터 WWF에서는 지속적으로 판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진행하며 국내외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WWF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회원으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 10주년을 맞이한 WWF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원회원으로서 WWF와 환경을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판다토크에 참여했을 때 어린 딸과 엄마가 함께 손잡고 온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10년 후에는 저도 자녀와 함께 WWF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두가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미래세대도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후원자 인터뷰 ②

도서 인세를 기부한 소린TV 안소린 후원회원

“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 생태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산림환경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정책과 환경경제에 대해 더 배우고자 환경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WF의 활동 중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계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WWF가 기업과 협력해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SBTi) 수립을 돕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활동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WWF 인스타그램 계정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지속가능한 K-POP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아, 참 일을 잘 하시는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이슈가 있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 홍수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한 WWF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후, 에너지,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팩트 있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출간한 도서의 인세를 WWF에 기부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WWF와 함께하게 되었나요?**  
소린 TV 유튜브 채널에 공부법과 입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엮어 <서울대생의 비밀과외>을 발간했고 인세 중 일부는 환경단체에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 중에서 WWF가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부합하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WWF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판다의 약속

WWF의 직원들은 서로를 ‘판다’라고 부른다. 판다들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WWF가 하는 모든 일의 영향력을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내 캠페인으로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는 ‘비건데이’, 둘째 주와 넷째 주는 ‘플라스틱프리데이’를 운영해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아나바다 행사를 진행해 사용하지 않는 물

품을 나누고 수익금은 기부했다. 2023년 10월에는 임직원 봉사 활동으로 양재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EM흙공을 던지는 등 도심 속 자연 보전 활동에 앞장섰다.

설립 10주년을 맞아 2024년 4월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해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회계 보고

한국WWF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된다. 2024 회계연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을 포함한다. WWF는 후원회원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투명경영을 위한 한국WWF의 지속적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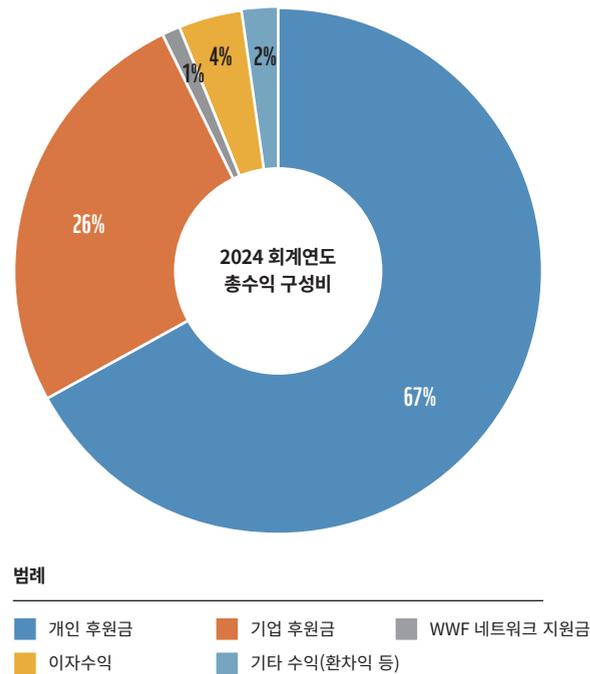
한국WWF는 공익회계법인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모금, 사업운영, 후원금 관리의 과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내용과 예산을 계획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에 수립 예산을 보고한다. 예산 변경이나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후원금을 사용하며, 후원 목적에 적합한 사용을 위해 회계 시스템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정과 증빙을 검증하고 있다. 연 2회 이상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 및 지출, 결산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며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 실적, 수입, 지출 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결산 내역 등을 이사회와 WWF 국제본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에도 공시하여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수익

2024 회계연도의 총수익은 76억 2천5백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수치이다. 총수익의 구성은 개인 후원금이 가장 큰 비중인 67%를 차지했고, 기업 후원금의 비율은 26%, WWF 네트워크 지원금 1%, 이자 수익 4% 및 기타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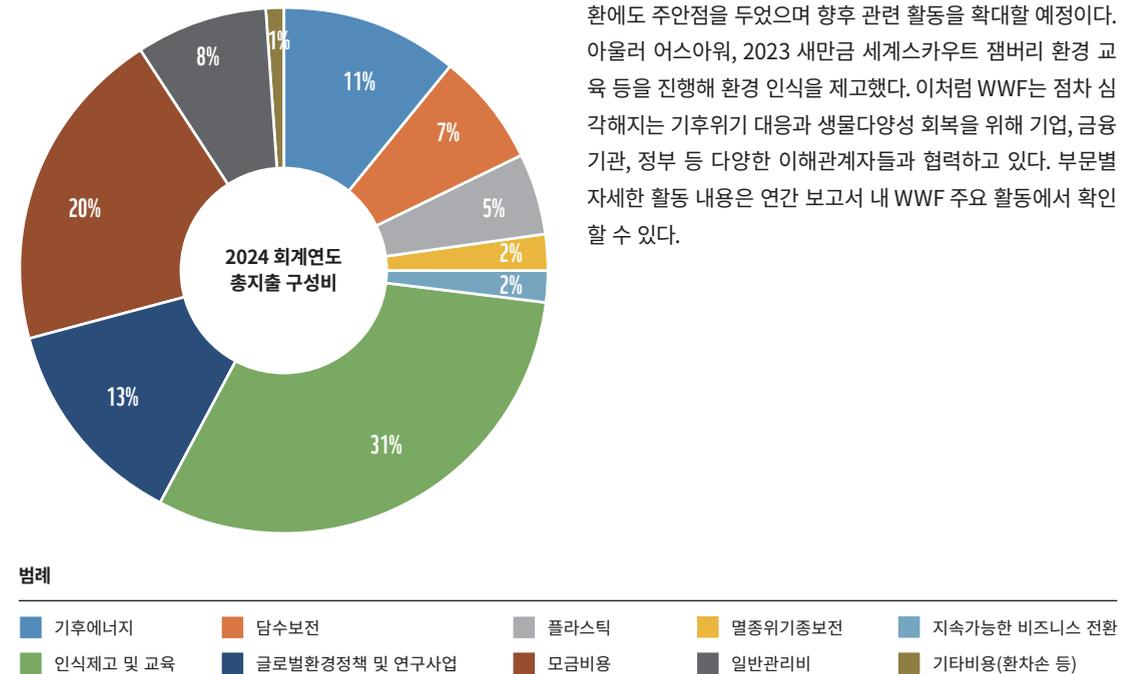
## 한국WWF 감사 시스템

|                      |   |
|----------------------|---|
| 외부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회계법인</li> <li>• 연 1회 감사</li> </ul>   |
| 정부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국세청, 세무서, 점검 및 감사</li> <li>• 환경부: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보고서 제출</li> <li>•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의무 공시</li> <li>• 세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li> </ul> |
| 공익법인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웹사이트 공시</li> <li>• 한국WWF 웹사이트 공시</li> </ul> <p>※ FY24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는 wwf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p>                  |
|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내부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2회 이상 이사회 감사</li> </ul>  |
| WWF International 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마감 후 연 1회 감사</li> </ul>   |

## 지출

2024 회계연도의 총지출은 65억 2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이며, 총지출 금액의 28%는 자연보전사업, 31%는 인식 제고 및 교육, 20%는 모금 활동, 그리고 9%는 운영 및 일반 관리비에 사용됐다.

총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기후에너지, 담수 보전,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자연보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WWF는 2030년까지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유입을 막는 큰 목표를 가지고 양양 침적 쓰레기 34톤 수거 및 처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에도 주안점을 두었으며 향후 관련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스아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환경 교육 등을 진행해 환경 인식을 제고했다. 이처럼 WWF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부문별 자세한 활동 내용은 연간 보고서 내 WWF 주요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F의 네트워크

## 한국WWF 이사회

### 이사장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유) 올촌 변호사)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그룹 부회장)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허유희 (GS건설 대표이사)

조현민 ((주)한진 마케팅 총괄 겸 디지털플랫폼사업총괄 / 사장)

### 감사

함종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 WWF 본부 현황

|           |        |        |           |        |
|-----------|--------|--------|-----------|--------|
| 가봉        | 멕시코    | 스위스    | 잠비아       | 튀르키예   |
| 가이아나      | 모잠비크   | 스페인    | 조지아       | 튀니지    |
| 과테말라      | 몽골     | 슬로바키아  | 중국        | 파라과이   |
| 그리스       | 미국     | 싱가포르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파키스탄   |
| 나미비아      | 미얀마    | 아르메니아  | 짐바브웨      | 파푸아뉴기니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베트남    | 아제르바이잔 | 칠레        | 페루     |
| 네덜란드      | 벨기에    | 에콰도르   | 카메룬       | 폴란드    |
| 네팔        | 벨리즈    | 영국     | 캄보디아      | 프랑스    |
| 노르웨이      | 볼리비아   | 오스트리아  | 캐나다       | 피지     |
| 뉴질랜드      | 부탄     | 온두라스   | 케냐        | 핀란드    |
| 덴마크       | 불가리아   | 우간다    | 콜롬비아      | 필리핀    |
| 독일        | 브라질    | 우크라이나  | 콩고공화국     | 한국     |
| 라오스       | 세르비아   | 이탈리아   | 콩고민주공화국   | 헝가리    |
| 루마니아      | 솔로몬 제도 | 인도     | 크로아티아     | 호주     |
| 마다가스카르    | 수리남    | 인도네시아  | 탄자니아      | 홍콩     |
| 말레이시아     | 스웨덴    | 일본     | 태국        |        |

## WWF 제휴기관

Associação Natureza Portugal (포르투갈)  
 Emirates Nature (아랍에미리트)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WWF Offices  
 WWF Associates



당신의 이름이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되도록  
**지구를 지키는 힘, WWF**

© divedog / Adobe Stock



지구를 지키는 힘,  
WWF와 함께 하세요

[wwfkorea.or.kr](http://wwfkorea.or.kr)



© 2024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전 World Wildlife Fund)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